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개요)

최일섭(서울대 교수)

I

한국에 전문사회사업의 이론과 실천이 교육되고 연구된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적어도 처음 20년은 사회사업의 3대 방법론이 공통적인 가치와 전제 위에서 대학교육의 핵심을 이루었고, 비록 이론과 현실상의 괴리가 지적되기는 했어도 사회사업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따른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된 사회사업이론이 지나치게 개인주의 및 가족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보다 공동체 지향적인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자성과 함께 토착적 사회사업이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가 하면 전문사회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동란 이후 한국의 사회사업계를 주도했던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현상과 사회보험제도 등의 도입으로 3대 방법론 중심의 전문사회사업은 이제 그 영역을 사회복지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전문사회사업의 정체성은 80년대 이후 더욱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80년대부터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이 대학의 교과과정에 나타나고 정부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개발하는데 따른 사회복지학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게 되자, 전통적인 전문사회사업의 방법론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사회사업학은 사회복지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세부 전공도 3대방법론 중심에서 이른바 “임상” 혹은 “방법론”과 “정책”이라는 양대 방법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현상은 임상전공과 정책전공간의 관계가 학문과 실천현장에서 완전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사업방법론의 한 극인 Casework와 다른 극인 사회정책간의 간극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토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결말을 맺지 못한 실정이다.

II

지역사회복지학은 C.O.의 변형된 명칭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C.O.가 지역사회복지학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사회복지학과 실천은 어찌보면 Casework와 사회(복지)정책의 양극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중간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학문적으로 C.O.(지역사회복지)는 Casework 및 Groupwork과 가치, 이론, 기술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Social Planning, Social Action 등을 포괄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 및 기술적 수요가 증대된 데에는 몇가지 상황변화를 주목할 수 있다.

첫째,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 기관인 사회복지관이 급신장되었고 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Casework과 Groupwork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근자에 국내의 대기업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사회복지재단들이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사회계획(지역사회복지의 한 model)의 기법에 근거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함에 따라 사회복지 행정 책임자와 기획담당직원들이 지역사회복지학의 이론과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지난 수년간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기업, 언론, 각급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게 되자 지역사회복지학의 이론과 기술이 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지역사회공동모금을 앞두고 지역사회복지학의 이론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III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개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어찌보면 지역사회복지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자조, 협동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50년대 후반부터의 지역사회개발사업, 그리고 1970년대부터의 새마을 운동,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민간부문의 지원에 의해 실천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고질적인 의식을 바꾸는 일이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개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